

우월한 보건시책이 은을 내도록 해주시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례적으로 커다란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셨다. 뜻깊은 이해의 첫아침에 하신력사적인 신년사에서도 온 나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삼가 축원하신 원수님이시다.

그 후든 정과 사랑에 누구나 가슴 뭉클해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후 사랑의 현지도도모도가 온 나라에 전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양제약공장을 찾으셨다. 그이께서 인민들이 무병장수하는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심하는지를 말이나 글로써 잘 보여주시는 하나의 실례이다.

그날 공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에게 평양제약공장의 개건현대화는 단순히 의약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이 좋다는 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지 폐부노 느끼도록 하게 하는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투쟁, 보람찬 투쟁이라고 가르치셨다.

그이께서는 평양제약공장을 우리 나라 제약공업부분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꾸리고 이것을 본보기로 하여 전국 의약공장들을 다 현대적으로 개건하자는것이 자신의 구상이라고, 제약공업부분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도약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평양제약공장현대화와 홍남제약공장현대화를 대담하게 밀고나가자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같은 조치들을 직접 취해주시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려고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극심한 고온현상이 지속되던 올해 여름철에도 인민을 위한 초강도현지도도강행군을 이가하셨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온천들을 다양하게 개발이용하기 위한 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며 온천들에 대한 자료를 거름 연구하시던 끝에 양덕군의 온천지구에 병치로도 하고 관광휴식도 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본보기 온천관광문화지구를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깊은 밤 현지도의 길에 오르시었다. 낮은 산들과 험한 경 길을 넘으시며 양덕군 온천리일대의 온천물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도가 80℃나 되

는 뜨거운 물이 더운 김을 피워올리며 팔팔 솟아치는 용출수를 보시면서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신듯, 쌓이진 피로가 다 가셔진듯 환하게 웃으시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의 현지도의 발걸음은 묘향산의로기구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졌다.

이 공장은 의로기구들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그런데 일군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장의 개건현대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이날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이 무상치료제에 의한 현대적인 질높은 의로봉사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하자고 하시면서 제약공업과 의로기구공업을 발전시켜 대중약과 의로기구생산을 늘이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세우고 힘을 집중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개건현대화사업은 자신께서 직접 맡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와 관련한 관련부문들의 과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시었다. 이렇듯 인민을 위하시는 그의 크나큰 사랑과 헌신에 의하여 류

경치과병원, 육류아동병원, 문수기능회복원, 류경안과종합병원과 같은 현대적인 병원들을 비롯한 의로봉사지들이 나날이 늘어나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있다.

벅해진 한 인민군녀병사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린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저는 영원히 잃을뻔 한 어머니를 살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무상치료의 혜택과 고마운 당의 품이 아니었다면 불치의 병에 걸렸던 저의 어머니가 온 한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날수 있었겠습니까. ...

이 세상에 오직 한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은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마련해주시어 평범한 저의 어머니도 생을 다시 찾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감사의 목소리는 한 가정에서만 울리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매일매시각 받고있는 온 나라 가정들에서 울리고있는 진정의 목소리이다.

광복지구산업중심에 어린 아버이사람

어느덧 한해의 마감무렵인 12월이다. 어제를 돌아보는 감회와 래일에 대한 부푸는 희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흥건히 젖어드는 12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경모심이 강렬히 차오른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클수록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순간의 휴식도 없이 인민행렬차를 달리신 그의 헌신의 자욱이 눈물겹게 어려온다.

피눈물의 해 12월에 도그이께서는 개신청년공민유회장, 함흥시 회상지구장장, 함흥전직공장, 28비날론련합기업소, 홍남구두공장, 하나울악정보센터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현지도도하시었다.

평양의 광복지구산업중심도 그중의 하나이다.

주제100(2011)년 12월 1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복지구산업중심을 찾으셨다.

두해전 당시 백화점이던것을 슈퍼마켓으로 꾸리도록 하시던 그이께서는 변모된 상업봉사기지의 개정을 앞두고 현지를 찾으시었던것이다.

인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상업봉사기지로 전변된 광복백화점을 돌아보려 추운 날씨이지만 이

렇게 왔다하고 하시며 매대들을 돌아보시는 그의 만면에는 환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광복지구산업중심은 상업일고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경영전반이 정보화, 수자화되어 봉사에서의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고 구매자들의 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도모할수 있게 되어있었다.

가정용품, 전자제품들과 당과류, 우유, 차, 기름을 비롯한 식료품, 아동옷, 놀이감, 조선옷, 내의류 등 섬유잡화들이 채워진 매대들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개점을 언젠개 하려고 하는가, 상품을 떨구지 않고 보장할수 있는가 등을 알아보시며 빠른문을 열어 인민들이 필요한 상품을 사가게 해야 애써 마련해놓은 상업중심이 은을 내게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광복지구산업중심을 손색없이 잘 꾸었다고 하시며 우리나라 상품들과 다른 나라 상품들을 팔아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신 그이께서는 이 세상 좋은것은 다 우리 인민들이 쓰도록 하자하는것이 자신의 구상이라고 하시었다.

어느덧 퍼그나 시간이 흘렀지만 그이께서는 그곳을 떠나실념을 하지 않으시고 인민을 위한 상점이 되고 인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오늘 인민생활향상에 복무하는 새로운 상업봉사기지를 돌아보니 정말 만족스럽다. 광복지구산업중심에 상품들을 가득 채워놓는것이 후대추운날이지만 마음이 후대추운날이라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나는 인민을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해놓았을 때 제일 기쁘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속에서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그의 혁명지론이고 삶과 투쟁의 목표였고 혁명생애의 전부였다.

그이의 심중에 꼭 찬 인민이라는 두 글자속에 불같은 헌신이 집약되어있고 그의 뜻과 사상, 의지, 신념과 열정 그 모든것이 깃들여있었다. 그의 한생은 인민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손길, 애민헌신의 자욱이 깃들여있는 광복지구산업중심은 오늘도 질 좋은 상품, 친절한 봉사로 국내외 손님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본사기자 리 설

김인호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수백개의 계단을 오르시어

주제102(2013)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단쪽으로 향하시었다. 동행한 일군들이 시운전중이던 승강기가 가동할 때 올라

리시어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그이께서는 17층에 있다는 실내 휴식터에 올라가보자고 하시며 계단쪽으로 향하시었다.

동행한 일군들이 시운전중이던 승강기가 가동할 때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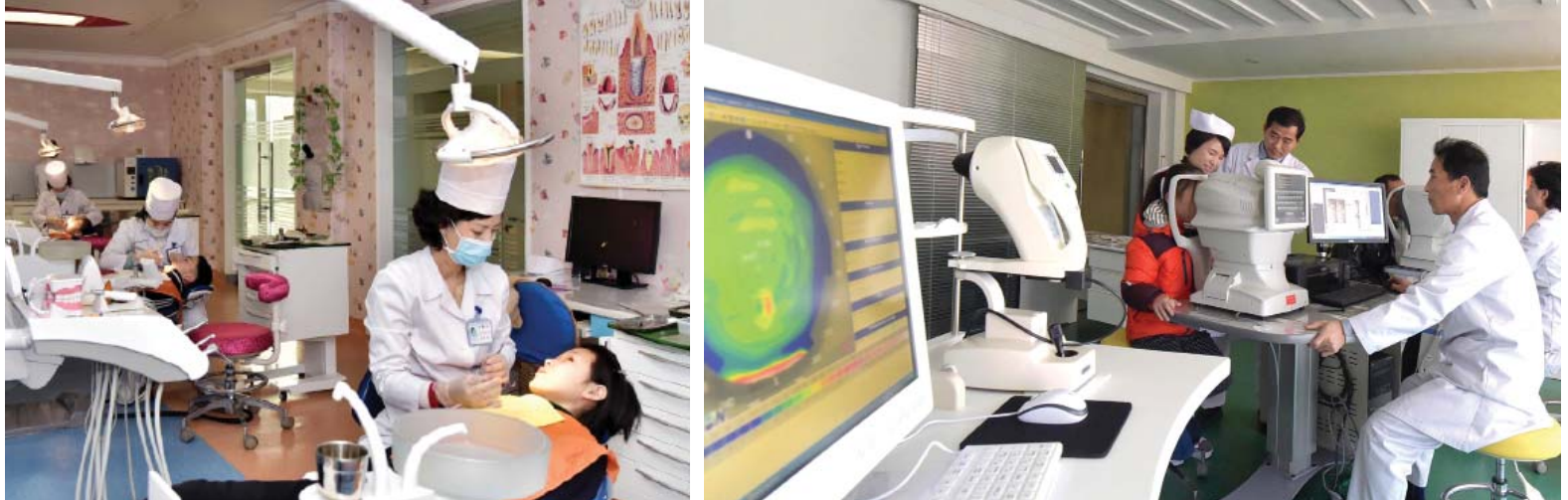
가보시는데 좋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두세개씩 건너뛰시어 계단을 오르시었다. 17층 실내휴식터에 오르시어 창밖을 내다보시며 경치가 참 좋다고 환히 웃으시는데 그의 웃음은 땀으로 젖어있었다.

고온속의 온실에서

휴백 벗어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온실남새생산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한 일군이 그이께 온실안의 온도가 43℃이므로 빨리 밖으로 나가시려면 하는 의향을 내비치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흔쾌히 일없다고, 수도시민들에게 사할 신선한 남새를 먹일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곳에도 다 가보겠다고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의료사업에 전심전력하고있는 류경지과병원 (왼쪽)과 류경안과종합병원(오른쪽)의 의료일군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서울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열의 날로 고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서울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열의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지난 11월 7일 13개의 통일, 진보단체들이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청송위원회》를 결성함에 이어 21일에는 《한국대학생진보련합》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꽃물결대학생실천단을 내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은 환영의기로 일렁이는 분위기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꽃물결실천단은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서울방문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이 실제 방문하시면 더욱 뜨겁게 환영할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결의해나섰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통일을 앞두고있는 조선반도의 전성기, 위대한 민족의 시기이다》, 《4.27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이미 많이 뒤바뀐 조선반도정세가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서울방문으로 더 크게 뒤집힐것이다》, 《김정은국무위원장님의 서울방문으로 분단의 고통이 빨리 가셔지고 통일이 가까워질수 있을것이다》, 《2018년이 평화와 통일의 해로 남고 남북이 통일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터치었다.

이들은 앞으로 서울의 주요대학과 시내중심을 돌며 환영단모집과 연설회, 노래공연, 통일기 및 조선반도회장물, 차량에 환영글붙이기 등의 활동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울방문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 진행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서울 로현구 주민들도 11월 21일 《서울남북정상회담서사 김정은국무위원장 환영1》, 《서울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합니다!》, 《로현에서 환영의 물결을!》 등의 구호들이 씌어진 대형프

랑카드와 손구호판들을 들고 《서울남북정상회담서사, 김정은국무위원장 환영 로현시민환영단》 결성식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사진과 함께 《서울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합니다!》, 《빨리 통일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의 문을 열어 통일의 자》 등의 글들이 적힌 조선반도그림종이들을 붙이면서 환영분위기를 높였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서울시민환영단은 서울 시내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울방문을 환

영하는 엄서쓰기운동을 벌리는것과 함께 주민들에게 조선반도회장을 나누어주면서 환영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초봄의 바다여 통일의 꽃물결로

지난 11월 14일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울에 오시면 통일의 꽃물결로 맞이할것을 호소한 시 《초봄의 바다여 통일의 꽃물결로》가 실렸다.

시는 남조선의 진보적녀류시인이며 사회활동가인 권말선이 창작하였다.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
허허벌판 저 광장에
맨먼저 초봄을 밝힌 그들은
기어이 박근해를 끌어내겠다는
단단한 믿음이 있었을것이다
광장에서 시작한 초봄이
작은 아이의 손에서
허리굽은 로인의 손으로
마음마다 팔목마다
파도치듯 일렁거렸을 때
믿음은 현실로 되었다
우리, 승리하였다

그때, 초봄처럼 하면 된다
다시 초봄처럼!
백두에서 높이 맞잡은 손

한나에서도 이어지도록
마을마다 꽃길을 만들자
거리거리 환호로 달려가자
초봄의 바다여 이제
꽃들의 바다로 되게 하자
저기, 통일이 오시는구나

초봄의 광장
승리의 광장에
통일의 꽃송이 피어나고
큰길에서
팔목에서
집집마다에서
아이의 손에도
로인의 손에도
통일의 꽃물결 넘실거리면
통일을 향해하던 적페도
민족을 방해하던 외세도
몽땅 사그라들고 쫓겨가리니

이제 통일이 우리의 승리다
초봄여, 다시 꽃으로 피어나
푸르른 반도땅에 통일로 피어나
향기로운 꽃물결로 파도치자
저기, 승리를 향해 달려가자
성큼성큼 통일이 오시는구나!

본사기자



《인권》라령에 비끼 미국의 추악한 속내를 해부한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에 대해 밝힌 수많은 글들중에는 미국의 한 녀류작가가 1852년에 내놓은 장편소설 《투아저씨의 집》도 있다. 이 소설은 19세기 중엽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흑인노예들에 대한 백인노예주들의 가혹하고 야만적인 착취와 학대를 보여주는것을 통해 미국의 참담한 인권실태의 진상을 폭로비판한 작품이다.

특히 소설에 나오는 백인농장주 사이몬 레그리는 오늘날 인간의 탈을 쓴 야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자의 악명으로 남아있다.

만약 이렇듯가 세상에 대고 그 누구의 《인권》을 떠들면서 《인권의 옹호자》로 행세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은 역사적으로 그 누구의 《인권》을 목이 쉬도록 떠들어왔다.

문제는 미국이 《북조선인권》이라는 적대시책이 다 폐지 오늘에 와서도 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유지한 광대국을 계속 연출하고있는데 있다.

최근 미국이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모략단체를 내세워 우리 나라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행위들이 만연하고있다는 허황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라는것을 발표했것이 그러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유엔과 유엔인권리사회가 북조선의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했지만 북조선은 다른 국제적의무와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했다.》느니, 《인권침해에 대한 북조선지도부의 책임있는 규명을 촉구한다.》느니 뉘니 하는 망발을 제치면서 대조선전대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미외교와 보수적인 언론, 전문가들도 제재압박과 《인권문제》를 대조선정책으로 계속 들고나가야 한다고 고

대고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품광대가 나는 《북조선인권결의안》이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내는 놀음까지 벌려왔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비열한 행위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아메리카 《신사》들과 그 하수인들이 조미사이의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국제개선의 새 역사를 써나가자고 언약한 현시점에서 여전히 도발적으로 나오고있는 조건에서 그 추악한 리면에 대해 다시금 까뻐하러 한다. 미국이 떠드는 《북조선인권문제》란 아무런 타당성도, 현실적인 근거도 없는 허위이며 꾀변이다.

조국과 인민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부모와 자식들까지 서슴없이 버리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이 쫓아낸 개나발들이 그 무슨 《근거》의 전부이다.

몇푼의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것이 없는 추물들이 꾸며낸 《중언》에 신빙성을 부여한다는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몇해전 우리 공화국의 《인권실상》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을 하여 적대세력들로부터 그 무슨 《도덕용기상》과 《인권상》까지 받은 신 모라는 《탈북자》가 공식석상에 나타나 자기가 유엔과 미외교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각본에 따른 연기라고 조작이었다고 실로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적이 있다.

이렇듯 대조선 《인권》소동의 모략정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도 백번 하면 그대로 믿게 된다는 겹뻬스의 꾀변 그대로 세상이 믿건말건 관계없이 헛나발을 계속 불어내고있으니 실로 함식하기 짝이 없는 한 국제문제전문가도 미국과 그 추

종자들이 해마다 채택하는 유엔 《북조선인권결의안》을 두고 《60여개 나라들이 참가하였다고 하지만 실지로 이를 주도한것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본, 남조선, 유럽동맹을 비롯한 일부 나라와 지역에 불과하다. 이 나라와 지역들이 유엔인권리사회를 통하여 조신의 실제적인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밀조사하고 결론을 내린것이 아니라 편파적이고 허구적인 자료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는 인신매매행위까지도 조선에 전가시키면서 《결의안》을 조작해냈다.》고 신랄히 까뻐하와 있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 제도의 근간으로 되고 혁명적동지애와 미덕, 미풍이 사회의 기풍으로 되고있는 우리 제도에서는 애초에 그 무슨 《인권문제》가 생겨날수가 없다.

험담군들에게 충고하건대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날조와 모의에 꼴을 썩이느라 하지 말고 우리 공화국을 직접 방문하여 제논으로 보고자 사람들의 말을 단 한번이라도 들어보라.

몇해전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 속한 미국전국법률가조합대표단의 한 성원은 미군유골공동발굴을 위해 우리 나라에 왔었던 미군장교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와이를 떠나 이곳으로 올 때 우리는 북조선이 지구상의 지옥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보고 들은 말중에 맞는 말은 하나도 없었다는것을 알고 몸이 놀라게 되었다. 이곳에 매우 좋은 곳이다. 인민의 화원이다. 우리가 서방의 보도매체들로부터 들은것, 우리의 상급들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은 완전히 현실을 외곡한 거짓말들이다.》

우리의 눈부신 이 현실을 제논으로 보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의 꿈같은 현

실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인간쓰레기들이 명줄유지를 위해 마구 나뻬는 황당무계한 소리들을 되바야외우고있으니 이 얼마나 망측하고 수치스러운 행태인가.

있지도 않는 남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더러운 재코부터 씻어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옹호》에 대해 목이 아프게 떠드는 미국에서 는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이 가장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백사천사우에 인민의 리익을 놓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각계층 인민들이 사회주의문명이 융축된 리상거리, 리상촌들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지만 미국에서는 스코산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있다.

미행정부가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집 없는 사람들의 수는 2017년에는 2년전에 비해 약 10% 더 늘어나 헤아릴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도 초보적인 생활조건도 갖추어지지 못한 세방에서 어렵게 살고있는 빈곤층세대 역시 계속 늘어나고있다.

애초의 권리,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은 또 어떠한가.

우리 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무상치료, 전반적무로교육을 비롯하여 유일한 인민적시책들을 마음껏 향유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참다운 인권을 행사하고있지만 절대다수 미국의 하층인민들은 배움의 권리, 치료받을 권리마저 송두리채 빼앗긴채 온갖 사회악의 수렁판에서 불우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미국에서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학비로 대학생들은 《대부금지옥》에 빠져들고있다. 미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의로비가 비

싸고 의료봉사절차 또한 복잡하여 사람들이 일단 병이 생기면 가산을 통채로 들이밀어도 고치기가 힘들다.

《자유의 녀신상》아래에서 사는 녀성들의 인권은 또 어떠한가.

녀성을 한갓 성적희롱의 대상으로, 상층층리 쳐부하는 미국에서는 89조당 1명의 녀성들이 성적학대를 받고있다.

은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이 되어 화목하게 사는 우리 공화국과는 판이하게 미국에서는 각종 범죄가 범람하고 하여 생명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2017년 한해동안 미국에서는 약 6만 1, 100건의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1만 5, 488명, 부상자수는 3만 1, 058명에 달하였다.

이처럼 인권생지옥인 제 집안골에는 눈을 감고 《국제인권재판관》행세를 하기가 낫것집지 않은가.

세상사람들이 미국이 없었다면 인권유린범죄의 거의 모든 항목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의 대조선 《인권》소동의 추악성은 공평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인민적시책들을 마음껏 향유하며 라는데서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과거 일제가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유괴, 랍치,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전정리와 고역장들에 버리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으며 100여만명의 우리 민족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특대형반인륜적만행을 저지르는데 대해 미국은 언제 한번 규탄하거나 문제시한적이 없다.

우리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는 문제까지 꾸며내면서도 일본의 특대형인권범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미일동맹친가》만 부르는것이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이 무엇때문에 그토록

《북조선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이 너무나없는 광대국에 매달리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여 저들의 제재압박책들을 합리화하고 조미형상에서 우리의 양보를 받아내며 나아가서 반공화국체제전복용계를 실현해보려는데 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핵문제》가 조미관계선의 결말돌린것처럼 운운하고있지만 실사 그것이 풀린다고 하여도 《인권문제》를 물고늘어지는 등 연이어 새로운 부대조건들을 내들며 우리 체제를 저들의 요구대로 바꿀것을 강박할것이다.

미국의 한 학자가 미국의 《북조선인권외교》의 최종목표가 반공적세력과 자본주의부활로 사회주의를 허무는데 있다고 밝힌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은 미국이 손짓하면 《지록위마》라는 성구가 그대로 통용되던 어제가 아니며 미국이 누구에게나 함부로 《죄인》의 감루를 씌우며 정의를 유린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이제는 우리와 미국의 정치군사적력학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미국은 더이상 부질없이 놀아대지 말고 달라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변천된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암울한 레일을 피하기 위한 출로이다.

미국에 아무골줄하는 나라와 세력들 도 정의를 위한 한조각의 량심이냐 맹렬한 지성이 있다면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감행되는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압박광대국에 가담하지 말고 제정신으로 살아야 할것이다.

리승권 (《로동신문》에서 전제)

향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하기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9월평양공동선언》의 첫 조항에는 북과 남이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간다는것이 명시되어있다.

외세의 의하여 민족분열의 비극의 역사가 시작된지 어언 73년, 우리 겨레는 너무도 오랜 세월 분열의 비극과 함께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왔으며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전쟁의 참화까지 겪지 않았던 안되었다. 최대열점지역인 서해해상에서 북남 사이에 총포탄이 오고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정세가 일순간에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이 땅위에 진정한 평화를 안아오기 위해 지금 북과 남은 《9월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북남사이에서 장령급군사회담들과 군사실무회담들이 진행되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이 진지하게 협의되었다. 북

과 남이 9월의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9월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약속한것은 겨레의 보금자리인 삼천리강토를 영원히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원하고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나가기려는 굳은 의지의 발현이다.

오늘날은 겨레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대토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환영하면서 북남선인들이 충실히 리행되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있다.

남조선의 각계 시민사회단

체들, 통일운동단체들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리장을 표시하면서 그의 리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서명운동 등 각종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감으로써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군사적긴장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것은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는데서 관건적인 문제이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해소와 협력과 교류, 조선반도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

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준 역사적인 리정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에 처음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며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겨레의 보금자리, 삶의 터전인 삼천리강토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6. 15일본지역위원회 모임 진행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6. 15 일본지역위원회)가 일본 도쿄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모임을 가지었다.

송헌근 6. 15일본지역위원회의장, 안병욱영예의장과의장, 장영인 서충원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국제통일국 국장, 리동제 제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 10. 4선언발표 11돐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참가하여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갈 의지를 가다

들게 하는 계기로 되었다고 말했다.

모임에서는 광범한 동료들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리행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려 동포사회에서 조국통일기운을 더욱 고조시키며 3. 1인민군 100돐에 즈음한 행사를 조직할데 대한 당면사업방향이 발표되었다.

모임에서는 제5차 북남수뇌상봉 등을 수록한 영상편집물이 상영되었다.

본사기자

인륜도덕도 법도 모르는 야만의 국가

죄를 지었으면 반성하고 사죄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고 태도이다. 나라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박근혜전직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무마시키기 위해 조작되었던 《화해, 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두고 일본당국이 치졸하게 늘어대고있어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의 비난과 증오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화해, 치유재단》 해산결정소식이 나오자 바쁘게 수상 아베와 외

상 고노, 내각방관장 스가를 비롯한 일본의 고위인물들은 《위안부합의는 국가간 약속으로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고야내는 가 하면 일본주재 남조선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한편 일본의 자민당은 국회에서 남조선당국의 해산결정을 반대하고 정부의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그 무슨 《결의안》을 채택하는 수동을 피워냈다.

망둥이가 뛰니 풀뚜기도 편다고 NHK방송, 《아사히신보》을 비롯한 언론들은 일본과의 의사소통을 무시한 남조선당국의 일방

적인 해산으로 여론화하면서 량국간 불신이 깊어지고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수 있다고 떠들고있다. 실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 아닐수 없다.

인류앞에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후안무치하게 늘어대는 섬나라족속들의 파렴치한 망당은 지금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일본이 《국가간 합의》라고 생떼를 쓰는 《위안부합의》도 말하건 박근혜역도 2015년에 몇푼의 돈을 받고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백지화해줄기로 밀약한 불법무법의 매국문서이다. 그 예에 비해 그 딸이라고 《유신》 독재자가 1960년대 몇푼의 돈으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야만적인 식민지배를 무마해주었다면 박근혜는 얼마 되지 않은 풀돈을 받고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우리 민족의 가슴에 새겨져있는 쓰라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천추만대의 죄악을 남기었다.

하기에 2015년말 《위안부 합의》로 조작되고 그 실행

남조선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실현에 나설것을 요구

최근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로골화되면서 그에 항거하는 남조선 각계의 움직임이 강해지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평화형정운동본부,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대학생진보연합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

은 미국이 북남관계의 《속도조절》을 강박하면서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있다고 폭로 단죄하면서 집회와 시위, 선전물배포, 서명운동, 벽보게제 등 각종 형식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외세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개입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실현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한편 남조선 각계는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개입이 날로 우심해질수록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공조해나갈것을 주장해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실현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한편 남조선 각계는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개입이 날로 우심해질수록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공조해나갈것을 주장해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실현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한편 남조선 각계는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개입이 날로 우심해질수록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공조해나갈것을 주장해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실현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한편 남조선 각계는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개입이 날로 우심해질수록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공조해나갈것을 주장해나서고



본사기자 김응철

까마귀 하루 열두번 울어도 개소리뿐이라고 남조선 보수세력들이 입에서는 동족대결을 부르짖는 망발만이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그 무슨 《연평도 포격도발 8주년》을 떠들면서 《연평도사건은 북의 위협이 결코 먼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사건이며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악당질을 해냈다. 그러면서 《최근 연평도는 걸로로는 평온한 모습을 되찾은듯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핵과 생화학무기를 갖춘 북과 대치하고있는 현실에 있다.》, 《자유민주평화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쉼체했다.

남조선보수세력들의 동

한 하나도 없다.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는 우리 민족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입에 게거품을 물고 민족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도전해나서고있으니 이런 천벌맞을것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북남관계개선호를 가로막아

본사기자 김영진

자기 머리로 사고할 때 제 길 이 보인다

최근 《최상의 밀월관계》, 《찰떡국합》을 자랑하며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춘던 일본이 상전과 전례 없이 었나가는 일련의 행동을 보여 여론을 혼란시키고있다.

일본수상 아베가 공식석상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일미사이에 시계바늘을 꺼꾸로 돌리면 절대로 안된다, 미국의 대일무역압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었드레질을 하였는가 하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탈퇴한 일본주주의 《환태평양경제대협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해오고있다.

지난 9월초 로씨야에서 열린 동방경제연단에 참가한 아베는 로일수뇌자회담을 진행하고 미국의 대로씨야제재조치에 저촉되는 공동경제활동을 벌리기로 합의하였으며 10월말에는 일본수상으로서는 7년만에 중국을 행차하여 쌍무관계를 《경쟁》에서 《협조》로, 《위협》에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자느니 뭐니 하면서 무역문제를 놓고 중국과 고전을 치르고있는 미국이 보란듯이 중일간 대규모경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에서는 아베수상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일본의 대외정책에서 그 어떤 변화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추측하고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나란한 현상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것이다.

지난 13일 미국의 대중국경정인물로서 손꼽히는 부대통령 펜스가 노기동맹에서 일본으로 날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빠진 아베는 지금까지 상전의 비위를 거슬리며 놀아낸 자기의 행동에 대한 리해를 요청했기라느니, 일본 외교의 《기속》인 일미동맹강화를 변함없이 다짐하겠다는느니 뭐니 하며 친미 굴종의 본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리고 펜스와 마주앉아서는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로위전략인 《인디아—태평양전략》 실현을 위해 막대한 액수의 정부지원금을 쏘여바치기로 하였으며 동맹강화를 위해서는 일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펜스의 강박에 항변 한마디 못하고 수긍하며 그의 온갖 혼시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역시 미국의 하수인, 꼭두각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떼어버릴수도 가리울수도 없는 궁색하고 불쌍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본다운 2중적처사이다.

공인하는바와 같이 일본은 패망후 지난 70여년동안 미국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철저히 예속된 아시아의 미국 돌격대이며 미국이 세계경제전략에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 품어들어 길들인 가장 충실한 미국의 노복이다. 일미관계는 각종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에 의해 철저한 주종관계로 맺어졌으며 일본은 지금까지 그 울타리를 벗어나본적이 없다.

물론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때 대미추종정책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를 해보고 시도하던 일본정치인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들은 레외없이 미국의 보이 지 않는 손에 의하여 제거되거나 정치적으로 매장되는 불우한 종말을 피하지 못하였다.

1956년과 1972년 미국의 압력에 불구하고 이전 쓰련이나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실현한 당시 수상들인 하도야마 이찌로와 다나카 가쿠에이 등의 운명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아베도 지난 2006년 취임후 첫 해외행각으로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찾아가자 1년만에 수상직을 내놓고 싶었던 안되던인 쓰라린 교훈으로부터 집권기간 친미일변도정책에서 한번도 탈선하지 않았을뿐더러 미국이 그어놓은 금

단의 선밖으로 뛰어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이처럼 친미추종에 습관되고 대미의 존이 습벽화되어 자주적대가 무엇인지, 그것이 국가정치에 왜 생명파도 같은것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일본일진대 오늘에 와서 상전의 구박을 좀 받는다고 새삼스럽게 불편을 느끼리 있겠는가. 일본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제아무리 골반이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미국에 통할리 만무하다.

사실들은 일본의 상층부에 친미근성이 골수에 찬자들이 틀고앉아있는 한 일미관계에서는 그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최근 아베정부가 찍하면 조일관계개선문제를 입에 올리고있지만 대조선정책을 제정없이 미국의 대조선경제압박책동에 앞장서서 새로운 대조선 《제재결의》 조약에 두팔걸고 나섰는가 하면 랍치문제를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와 마주치지 않겠다고 호언하여왔다.

그러던 아베정부는 미국이 예상밖으로 우리와의 대화에 나서고 싱가포르 조미수뇌상봉이라는 역사적사건까지 이루어지자 대경실색하여 평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아베가 직접 나서서 독자적으로 조일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조선의 최고령도자와 직접 마주앉아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호기를 부리고도 하였다. 이것이 본심이라면 응당 아베정부는 미국의 대조선강경압박정책에서 대담하게 탈각하여 조일관계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태도와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였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겉으로는 조일관계개선을 운

운하면서 돌아앉아서는 미국의 기본과 속내를 살피기에 급급하면서 대조선 문제에서 강은전략을 펴고있는 상전의 선견대역활을 토포히 수행하고있다.

지난 10월초 일본에서 미국부장관 폴메오를 만난 아베가 일미사이의 대조선 경제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활동을 진행하는 우리 무역선을 유엔의 대조선제재명단에 박아넣자 기다렸다는듯이 저들의 독자제재명단에 포함시킨것은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10월 중순에는 직접 유엔나라들을 돌아다니 국제적인 대조선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유엔결의를 완전히 리행해야 한다고 반공화국국제제압박분위를 고취하였으며 이번에 펜스를 만나서는 미국의 대조선 제재책동에 적극 편승하는 문제와 함께 우리의 무역선들을 유엔 《제재결의》 위반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새로운 모의를 벌였다.

지금 아베가 조일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집요하게 떠돌고있는 《랍치문제》만 보아도 미국이 《북인권》 소등을 대대적으로 벌리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들고나와 반공화국대결의식고취에 악용해온 정치적도박막을 지나지 않는다.

시대착오적인 이러한 적대적당동에 계속 매달리면서 그 무슨 새로운 조일관계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일본의 후안무치함과 2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줄뿐이다.

이미 조선과 일본 두 나라는 미국보다 16년이나 앞서 수뇌상봉을 진행하고 두 나라사이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일 평양선언도 채택하였다.

그러나 조일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미국에 의해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절대적으로 추종한

일본의 배신적행위로 하여 모든것은 종이상우의 빈 약속으로만 남게 되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도 전혀 달라진것이 없다.

구태여 달라진것이 있다면 당시 관방부장관이었던 아베가 오늘날 일본수상으로 된것이고 일본의 대미굴종사상이 당시보다 더 농후해진것뿐이다.

세기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구태의연한 친미추종정책만을 추구하는 일본이 그 본색을 가리워보려고 제아무리 가면을 연출해봐도 오늘의 대명천지에서 절대로 통할수 없다.

아베가 제정신이 미국의 제재라평과 《인권소통》에 발맞추어 대미강화와 해결된 랍치문제를 계속 외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명백히 일본의 대미추종정책의 연장으로 간주할것이며 따라서 일본이 그토록 애절하게 바라는 조일관계의 전도는 더욱 리원해질것이다.

일본은 자기 눈에 맞지도 않는 미국식안경을 끼고 현실을 대한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아시아의 《대국》대접은 커녕 언제 가도 《난쟁이 왜나라》라는 수치스러운 갖을 벗어던질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껏 일본이 미국을 그토록 충실히 섬겨왔어도 돌아오는 대접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본역의 유지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일본에 대한 미군의 장기주둔을 허용하고 방대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며 별의별 아첨을 다했지만 무역전쟁의 대상에서 면제되기는커녕 더 큰 무역압박을 받아

나는것자체가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다.

양지역의 패권유지를 위한 늑거리돌격대, 한때 때리던 반격의 주먹이 아니라 목돈을 안겨주는 속대약한 장사치정도로밖에 보지 않는다.

권고하건대 력사에는 사대에 미쳐 《동맹》에 잘못 기여들었다가 망한 속국들이 있는가 하면 제 머리로 시대의 변화를 옮겨 포착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제때에 빠져나오으로써 목숨을 보존한 약소국들도 있다는 사례를 일본은 참고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며 경직에서 벗어나 자기 눈으로 현실을 바로 볼때 비로소 새 길 이 보인다. 이 행성의 대지각변동이 일본을 지리적섬나라로 만들었다면 오늘날 국제정치세의 격변하는 흐름을 보지 못하는 정치적소경인 아베와 그 일당의 분별없는 반공화국대결망동은 일본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된 외로운 정치적으로 만들버릴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아베당국이 진정으로 조일관계개선을 바라한다면 누구도 귀기울이지 않고 세세는 물론 미국자체도 그 부당성과 무력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늑아빠진 제재라평이나 그 어떤 명분도 없는 랍치문제마위를 들고다닐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과거죄악을 인정하고 사회와 배상의 력사적책임에 성실하려는 새로운 태도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우리의 량심은 명백하다. 아베일당이 지금처럼 놀아낸다면 일본은 영원히 평양행렬에 오를수 없게 될것이며 평양문턱을 넘보기도 어려운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향후음직임을 주시하여볼것이다.

대 철 (《로동신문》에서 전재)

민주로총을 비롯한 단체들이 반미 집회 진행

남조선에서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의 리행을 가로막고있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반대하는 각종 층의 투쟁이 고조되고있다. 최근 범민련 남측본부, 평화협정운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과 청년학생단체들은 련일 집회들을 열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철폐!》, 《대북경제제재해제!》의 구호를 웨치면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하는 반미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민주로총, 전교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단전체, 미군철수 반미집행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주권련대를 비롯한 단체들도 련일 반미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장

점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한국진보련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도 《미군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인식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미군철수운동에 총력을 집중할것을 결의해나섰다.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붙이는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 남조선장점 미군이 감행한 범죄들을 폭로하는 사전진시회, 선전물배포, 서명운동, 대자보게시 등 반미투쟁이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남조선 각계층에서는 현 당국이 미국에 추종하지 말고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에서 날로 높아지는 이러한 반미투쟁기운은 미국이 부식시킨 중미사대가 밀부러져 뿔쳐나가는

시대의 퇴물을 력사의 무덤에 처박아야

오늘 북과 남사이에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속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에는 아직까지도 평화변영과 자주통일이라는 시대의 흐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칙, 제도적장치가 적지 않게 남아있어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70년전에 조작된 《보안법》이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동서고금을 없는 사상죄악의 파조악법, 회색의 인권말살 악법이다. 1948년 12월 1일 리승만이 친미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진보인사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조작한 《보안법》은 세계법제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반인권적독소조항들로 이루어져있다. 《보안법》은 생겨난 첫날부터 민족반역자, 군사장제 등 반동통치책들의 집권유지와 반대파제거를 위한 살인도구로, 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폭압수단으로 악명떨쳐왔다.

《보안법》은 제국주의식 민지독압통치수법을 그대로 본딴 가장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파조악법이다. 일제통치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만든 《보안법》은 표현만 바꾸어 놓았을뿐 제정목적이나 적용범위, 대상, 형량 등에 있어

《치안유지법》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하지만 남조선의 력대통치배들은 미국의 비호밑에 이 악법을 유지하며 독재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다.

《보안법》은 또한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까지 유린 말살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이다.

사람이 사회적진보를 위해 활동하는것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회색의 인권말살 악법인 《보안법》에 의해 해진사상의 연구,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이 응당 누려야 할 초보적인 권리는 물론 인륜도덕과 인간의 생존권마저도 전면 부정당하여 왔다. 보수집권세력은 《보안법》을 마구 휘두르며 진보적정당들과 단체, 개별적인 인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테러와 학살, 고문 등 그 어떤 반인륜적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북과 남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대화는 물론 북에 동조하거나 통신, 서신거래를 하는것까지 범죄시할수 있게 《감입탈출죄》, 《찬양, 고무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등을 쏘아박고있다. 여기에 사형에 처할수 있는 죄목만도 무려 수십가지나 된다.

지난 시기 리명박, 박근혜 정당들도 《보안법》을 휘둘러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을 무지막지하게 탄압하였으며

통합진보당, 《자유민주》와 같은 정당, 언론들은 《중북세력》으로 몰아 거세말살하는데 퍼논이 되어 날뛰었다.

21세기에 아직까지도 남조선땅을 파초의 암흑천지, 인권유린의 도살장으로 만드는 이런 총세기적이고 반인륜적인 악법이 존재하고 있다는것자체가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다.

대우기 북과 남의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반복과 적대의 과거와 결별하고 화해와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고있는 오늘에 와서까지 이런 반통일대결악법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은 민족의 수치가 고 비극이 아닐수 없다.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할 대결시대의 늑은 칼

힘들게 되어있다. 지금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각종계층은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법으로 악명높은 《보안법》이 70년이 된 오늘에도 생명을 유지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옥아매고 있다.》,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 통일을 위해서 《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제는 더이상 북을 적대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분렬과 맹정의 산물인 《보안법》으로 구속된 모든 량심수들을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화권리를 억누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파조대결악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마땅하다.

문명일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할 구제불능의 니전투구당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가 11월 23일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할 구제불능의 니전투구당》이라는 제목으로 권력세력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하였다.

신문은 22일에 었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후보들의 토론회에서 상대후보들에 대한 비난공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세력을 두둔하며 스스로 악폐세력임을 립증하는 반역적망언들이 판무하였다고 하면서 토론회는 당운영에 대한 전망은커녕 의사소통이 없는 니전투구식 비난뿐이었다고 신문은

단죄하였다. 신문은 지난 지방자치선거로 사실상 정치적생명이 끝났던 《자유한국당》에는 반성이란 찾아볼수 없고 파벌의 책임을 떠넘기며 당권을 장악하려는 추태와 만행만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악폐의 본산이 라는것이 더 명백해졌다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선거는 계파들간의 아귀 다툼으로 변치며 그 추악한 본색만 포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미 민심의 심판을 받고 모두 사라졌어야 할 《자유한국당》의원들이 남은 임기로 권명하며 발악적으로 중동하는 모습은 민심을 격분시켜 수구세력전체의 궤멸을 촉진시킬뿐이다.

보수세력의 유일한 출로는 민심의 요구에 따라 《자유한국당》소속 《국회》의원들을 전원탈퇴시키고 해체하는데 있다.

본사기자



최근 일본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해피매축한 망언들이 다시금 쏟아져나와 전체 조선민족의 치초는 분노와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11월 21일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모임 등은 일본국회 립근에서 《독도문제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동경집회》라는것을 열고 독도가 저들의 령토라는 억지주장을 펼치였다. 여기에서 한 자민당의원은 《일방적인 불법점거와 독선적인 행동에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떠들었는가 하면 내각부 부대신이라는자는 《독도는 명백히 일본고유령의 령토이다.》,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피대를 돌구었다.

남의것을 제것이라고 우긴다고 하여 제것이 되는것은

은 명백히 《조선》으로 표기되어있다.

과거 일본이 내각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게시마》라고 부르고 부라 부라 시마현에 종속시킨것은 1905년 1월이었다. 일본이 그 결정을 울릉군에 통보한것은 날강도적인 《을

고 우겨대는 후안무치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명색이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피로 얼룩진 어지러운 자기 나라의 수치스러운 죄행의 력사에 대해 사회와 국민성을 할 대신 오히려 이를 미화보시하며 그것도 모자라 남의 신성한 령토를

을 이루어보겠다는것이 현 일본당국자들의 흥심이다. 이로부터 일본당국자들은 침략무력의 강화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왔으며 오늘에 와서는 내외의 강력한 량의 규련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되어있는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일본 《자위대》를 정

호시탐탐 노리는 첫번째 대상이다. 독도를 먹고 나아가서 전 조선반도를 지배하고 동북아시아, 세계를 제패하겠다는것이 바로 일본의 야심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지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독도가 제땅이라고 우겨대며 제침야망의 이발을 드러내는 일본의 강도적행태에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가 충우의 눈초리를 돌려내고있다.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깨일도 영원히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이다. 일본은 독도가 제땅이라고 피대를 돌구며 강탈야망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 천년갈등을 더욱 폭발시킨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안권일

하무카이 후예들의 변함없는 침략야망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한 조선의 수많은 국가적 문헌들과 력사자료들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옛 기록들에는 독도가 명실공히 조나 지리적으로 보나 국제적으로 보나 우리 민족의 신성한 땅이다.

우리 민족의 신성한 땅을 저들의 땅이라 우겨대는 일본정객들의 파렴치한 태도는 그야말로 흰것도 검은것이라

사5조약》을 날조한 그 다음해였다.

이러한 단편적인 실례들과 일본의 자료들이 보여주는것처럼 독도는 력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국제적으로 보나 우리 민족의 신성한 땅이다.

우리 민족의 신성한 땅을 저들의 땅이라 우겨대는 일본정객들의 파렴치한 태도는 그야말로 흰것도 검은것이라

자기의 땅이라 우기며 강탈하려고 책동하는것을 보면 지난 세기를 불붙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저들의 땅의 일부뿐이라고 주장하던 일본사무원자들의 오만한 행태를 그대로 방불케 한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일본의 침략야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대동야공영권》의 개공

상국가의 군대로 개편하고 해외침략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려 하고있다.

《대동야공영권》의 망상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에 었어서 어제도 오늘도 첫번째 목표는 조선반도이다. 독도문제를 구실로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야욕을 실현해보겠다는것이 일본의 간두한 속심이다. 독도는 제침의 기회만을

《빛나는 조국》에서 조선을 보다 (4)

북녘 사회에 넘치는 통일 열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의미심장하면서도 강렬한 주제는 통일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제4장 《통일삼천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민족사적대업실현에서 거대한 전환적사변들이 연이어 이룩되는 가슴벅찬 현실,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장엄히 열어가는 공화국의 직구적인 립장과 노력을 잘 형상화했다.

배경대에 《평화번영 통일의 새시대》, 《4.27선언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9월평양공동선언》, 《꿈도 하나 소원도 하나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문구들과 통일기를 형상한 그림

들이 펼쳐지고 《우리는 하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의 노래들이 울려 퍼질 때 나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 내리었다.

특히 지난 4월 27일에 관문점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과 문재인대통령이 서로 악수하시고 포옹하시는 장면, 4.27관문점선언에 서명하시는 영상사진문헌 등이 배경대에 모서리자 장내에서는 더욱 우렁찬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 모습을 우리는 나의 눈앞에는 지난 9월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의 나날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어 온 겨레에게 뜨거운 통일열망을 안겨주시었던 감동의 화폭도 떠올랐다.

공연은 관람하는 나의 마음은 벌써 평화번영과 통일의 그날에 가있는듯싶었다.

이는 나만이 아닌 관람자들이 모두의, 아니 온 겨레의 한결같은 심정이었으리라고 본다.

화해와 단합의 아름다운 춤물동과 거대한 화폭들이 경기장바닥과 배경대에 연이어 수놓아질 때 장내에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더욱 차넘치었다.

도이쉴란드에서 왔다는 한 기업인은 《김정은위원장께서

관문점분리선이 지나간 곳에서 남조선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장면으로 절정을 이룬 공연은 마땅히 세계에 기록해야 한다. 김정은위원장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이 있기에 조선의 앞날은 휘황하며 머지않아 통일도 이룩될 것이다. 오늘 공연을 DVD에 기록한것이 있으면 꼭 가지고가서 우리 도이쉴란드사람들에게 보여주고싶다.》고 격정을 넘쳐 나에게 말하였다.

공연관람이 끝난 후 나는 한 공연관계자를 만나 어쩌면 겨레의 통일열망을 이렇듯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할 수 있었는가고 물었다.

그의 대답이 잊혀지지 않는다.

《매 장, 매 경이 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완성되었습니디.》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장에서 민족사에 길이 남을 력사적 화폭을 배경대에 생동하게 재현하도록 하시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같은 노래를 통해서도 겨레의 통일열망을 뜨겁게 구가할수 있도록 형상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통일의지가 얼마나 강렬하시었으면, 그분께서 얼마나 뜨거운 민족애를 지니시셨으면 국사로 다망하신 속에서도 공연세부에 이르기까지 지도를 주시었으며 하는 생각에 목이 메어왔다.

력사적인 4.27선언의 기치 따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 겨레의 강렬한 지향이 통일삼천리로 아름답게 수놓아지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바라는 겨레의 열망이 장내에 울려 퍼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우리 민족사에 남을 재보존의 재보이다.

조선에서 《빛나는 조국》 공연은 막을 내렸지만 경기장에 울려 퍼지던 북녘겨레의 뜨거운 통일합성은 지금도 내 귀전에 들려오는듯싶다.

재중동포 김희진

*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대학 지능기술연구소에서 *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그 리용범위가 여러분야로 넓어지고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나라들사이의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가까운 앞날에 광범하게 리용될 인공지능의 정수에 누가 더 먼저 가까이 다가서는가는 지금 이 부분에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고있다.

사람의 의성을 인식하여 자동적으로 기계를 움직이도록 하는 기술이며 자재를 인식하여 자체로 랑독을 하는 기술과 같이 보편화 된 인공지능기술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공지능기술이 개척한 놀라운 기술적 진보와 함께 앞으로 그것이 보여줄게 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게 하고있다.

하나 이러한 첨단 기술은 그에 필요한 인재력량, 연구조건과 같은 문제로 하여 일부 나라들의 독점물만 되어오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대학 지능기술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자기의 우수한 인재력량과 과학기술적 토대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분야에서 패권을 쥐고 세계적 기업들과 당당히 겨룰만한 실력을 키우기 위하여 피라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에 또다시 공화국의 10대 최우수정보기술기업으로 선정된 연구소에서는 관공있는 연구집단의 앞장에 20대, 30대의 젊은 과학자들을 내세우고 그들의 창발력과 경쟁심을 적극 발동하고있다.

교육의 최고 전당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 연구자들은 인공지능분야에서 이룩된 많은 나라들의 성과와 경험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공화국의 현실에 맞으면서도 절실히 필요한 과제들을 연구목표로 삼고 분투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연구소에서는 이미 국내에서 패권적지위를 차지한 조선어문자인식 기술과 조선어음성인식기술을 보다 완성하는 등 지난 시기 이룩한 과학기술성공들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도 심화시키고있다.

최철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대학 지능기술연구소장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음성인식기술과 문자인식기술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그것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조선어에 맞는 음성인식기술과 문자인식기술을 자체로 개발하고 그 토대를 부단히 다져나가는것이 우리들이 세운 연구목표이고 과제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해에 걸쳐 공화국의

10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기 단위의 연구성과를 놓고 볼 때 충분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본시기자 김현은

연구소에서는 지난 기간에도 인민경제의 여러부면에서 요구되는 통합생산 및 경영정보관리체계와 과학기술보급체계를 비롯한 여러건의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공들을 내놓아 생산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해당 단위들의 사업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자체로 개발완성한 새로운 인공지능기술들을 현실에 도입하여 그 실용성과 리용적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연구소의 정명일연구사는 《우리는 세계와 경쟁하여 앞서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언제나 나 심정에 새기고 사색과 연구를 하고있다. 분분초초마다 쏟아져나오는 수많은 정보기술제품들 가운데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새로운 기술을 탐구해내는것이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에 도전하는 우리의 일본새이고 립장이다.》고 말하였다.

인민경제의 많은 부문들에서 요구되는 인공지능기술을 개척해나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세계와 경쟁하고 도전해나가는 공화국의 과학자들의 당대한 기상과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본시기자 강류성



인간사랑의 화원인 공화국에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미덕의 주인공들이 많다.

그중에는 평양북도인민병원 신경내과 의료일군들도 있다.

얼마전 이곳 도인민병원 신경내과에는 전신마비로 온몸을 전혀 움직일수 없는 구급환자가 실려왔다.

그 이름은 변주경, 어느 한 기계공장에서 일하는 처녀 혁신자였다.

지체없이 환자를 구원하기 위한 구급소생전투가 벌어졌다.

병원 의료일군들의 가슴속에는 오직 하나 인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 지어 피와 살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 보건의료일군의 응당한 본분이고 의무이라는 일념만이 불타고 있었다.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료해하기 위한 긴급의사협회의 회가 여러차례 진행되었다.

과장인 김용남, 의사들인

과장정, 권일경, 김성진선생들과 간호원들은 뜨거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료를 진행하였다.

환자의 병력서가 하루에도 몇장씩 덧붙여진 사실을 놓고서도 한 처녀의 소생을 위해 애쓴 의사, 간호원들의 헌신의 모습을 엿볼수 있다.

진강한 몸으로 병원을 나서게 된 딸의 모습을 보며 그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사회주의 보견제도가 있어 우리 딸애가 두번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마음속 진정을 터치었다.

환자를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뼉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없애기 좋네

... 본시기자 김진혁

건강증진과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계기

* 평양국제건강 및 체육과학기술전시회를 돌아보고 *

현시대에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과 체육사업도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얼마전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된 평양국제건강 및 체육과학기술전시회가 이것을 잘 보여주었다.

조선과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는 건강 및 체육과학기술품문의 100여개 단위들이 출품한 700여점의 전시품들이 현물과 제품소재, 다체제전집물형식으로 전시된 이번 전시회는 이 부분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끈것은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절실히 필요되는 각종 의약품들과 의 료기구들이었다.

평천고려약공장에서 는 뇌혈전증, 뇌출혈후유증, 자물신경질소증, 머리아픔, 잠장애 등의

치료에 특효가 있는 특사한, 심한 기침과 지근지근한 허리와 신경통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정맥전통엑스가루약, 뛰어난 정력강화식품인 산딸기꿀, 항로화작용, 혈당낮추작용, 방사선 및 전자파피해방지작용, 빈혈, 허약, 피로회복 등 이모저모로 건강에 좋은 치커리엑스 등 많은 고려약재들을 출품하였다.

무병새기술교류사에서 내놓은 황구렁이보양알, 심장단약알, 키크기영양알도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천연산장교감, 천연소화교감과 함께 건강, 간염, 건강변, 급성 및 만성간염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천연간장교감, 맑고 투명한 살결을 만들어주는 천연미산제, 맛이 구수하고 건강에 매우 좋은 천연팔복차 등이 전시된 천연건강제품전시회에서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다.

건강합작회사에서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되찾아주어 여성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레이자미안기와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뇌의 피순환장애 등의 치료에 뚜렷한 효과가 있

는 휴대용반도체레이자치료기, 과도한 손과 발의 땀분비를 치료하는 직류이온치료기, 다리교정기, 개선치료기,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소독수제조기를 비롯하여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여러가지 의 료기구들을 내놓았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 체육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체육기재 및 스포츠웨어제품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서성구역청소도체육학교에서 출품한 탁구공격반아 치기측정기, 탁구에효과가 있고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탁구관과 탁구관 한쪽에 붙인 카버를 댄 나무막대기, 수감부, 콤퓨터로 이루어진 기계는 콤퓨터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의 공지기회수와 송구변화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볼수 있기때문에 탁구를 배우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치기능력을 높일수 있는것은 물론 지도교원들이 그들에 대한 훈련지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평양청소도체육단에서 개발한 《지문을 리용한

구급환자를 소생시킨 비결

-평양북도인민병원 신경내과 의료일군들-

치료사업의 여가시간이면 환자와 다정한 이야기도 나누고 자기들의 가정에서 마련해 가지고 온 갖가지 보약과 영양식품들을 한가득 안겨주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이곳 병원의 의료일군들이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이곳에 왔던 신의주에서 사는 리진옥녀성은 가까운 곳에 환자의 친척이 없다는것을 알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여러차례 성의껏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병문안을 하여 그 하루빨리 완쾌된 몸으로 일어서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다.

처녀의 얼굴에 소생의 기운이 떠돌 때 과의 모든 의사들과 간호원들은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고 한다.

헌신의 날과 달이 흐르는 속에 드디어 처녀혁신자의

우월한 제약원료생산공정 확립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이 연이어 일떠서고있는 속에 대평생물기술개발소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얼마전 대평생물기술개발소에서는 세계적으로 약용 《황금》이라고 불리우는 디오스게닌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최고의 수준에 올려세웠다.

디오스게닌은 프레드니솔론, 히드로코르티손을 비롯하여 수백가지 스테로이드호르몬의약품의 합성원료로 리용될뿐아니라 축산업, 양어업, 화학공업 등 그 리용범위가 세계적수요가 나날이 확대되고있는 공업원료의 하나이다.

대평생물기술개발소의 과학기술집단이 거둔 눈부신 성과로 하여 공화국에서는 디오스게닌을 수입하지 않고 스테로이드호르몬의약품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게 되었으며 디오스게닌을 출발원료로 하는 다양한 공업을 창설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전동철 대평생물기술개발소 소장은 공화국의 품속에

사람같이 떨쳐나 생산공정 확립에 필요한 설비, 자재보장을 책임적으로 하였다.

결과 10여㎡짜리 특수합금강으로 만든 10여개의 탱크를 1/100용적의 일반 탱크장으로 만든 한개의 탱크가 대신하고 100여명의 로력을 10명 이하로 줄이면서 디오스게닌 1t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훨씬 단축하는 첨단수준의 생산공정을 빠른 시일 안에 확립할수 있었다.

또한 디오스게닌 1t 생산하는데는 전력, 증기, 물소비가준도 절반으로 줄이면서 산재액이 극히 적게 나오므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은 에틸알콜로 전환되게 되었다.

자체의 원료에 철저하여 거하면서 자체의 생산설비에 기초한 로력절약형, 자재절약형, 전기절약형, 물질약형, 환경보호형의 디오스게닌연속생산공정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귀중한 창조물이며 제품의 질 역시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이번에 공장에서는 펠리드유료, 인삼건강유료, 발효초



이번 전시회에서 특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끈것은 오일 건강유료종합공장에서 출품한 여러가지 건강음료들이다.

가장 효과적이고 리상적인 항산화제인것으로 하여 21세기 기적의 건강조수 불리우는 수소수소 유체적부담과 피로회복에 좋은 에너지활성음료들 그리고 과일 맛과 향기를 그대로 살린 유유와 아이스크림, 에스키모를 비롯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중수가 다 양할뿐아니라 영양가도 높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이번에 공장에서는 펠리드유료, 인삼건강유료, 발효초

단나무열매발효초음료, 홍곡발효초음료 등 발효초음료들도 인기가 높았다.

특히 동충하초영양액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다기능성 약재인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겨울에는 벌레였던것이 여름에는 풀로 돌아나오다 하여 이름지어진 동충하초에는 함양특유성분인 코르디세핀, 활성이 가장 높은 면역 조절다당, 다양한 회복작용을 하는 아데노신과 세포의

로화를 막는 과산화디스무라제와 같은 효소들이 들어있어 현대의학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고있다.

하지만 해발 3 000m이상의 고원지대에서 자연적으로 자

동충하초영양액을 만들어 내놓았다.

이 공장의 전시대를 돌아 본 참관자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진 기능성음료제품들이 제일이다, 맛이 독특하며 영양가가 높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번에 출품된 오일건강유료종합공장의 제품들은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세계적 추세에도 맞을뿐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병치료, 운동능력 향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제품인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본시기자 김 철

민족의 기상안고 푸르려 설레이나

—모란봉의 소나무숲속을 거닐며—

봄과 여름에 넓고 푸른 잎새를 자랑하던 하얗은 나무들이 계절의 바뀔과 함께 벌어오는 찬바람앞에 마르고 시든 잎들을 우수수 떨고 있다.

하긴만 평양의 한복판에 솟아있는 모란봉은 여전히 청신한 공기, 풍치수려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겨주고 있다. 가벼운 운동복차림의 사람들, 손에 책을 든 사색질은 표정의 대학생들, 큼직한 화관을 둘러댄 미술가들...

그들속에 섞인 우리도 모란봉의 정취를 새겨안으며 숲속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굽이굽이 뻗어간 길을 따라 오르면 오를수록 가슴이 쾅하듯 스며드는 싱그러움 향기, 그것은 다름아닌 사시절 푸르른 소나무들이 풍기는 향기였다.

평양의 명승지 모란봉과 더불어 만물이 움츠러드는 추운 계절에도 세찬 바람을 맞받아 푸른 잎 무성한 아지를 펼치고 거닐어 서있는 소나무들이다.

그윽한 소나무향기를 맡으며 모란봉을 오르는 우리의 귀전에 얼마전에 만났던 강원부 모란봉청년공원관리소

리베인의 이야기가 다시 들려오는것 같았다.

해방된 이듬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함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르신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모란봉을 찾으시어 나무를 많이 심음에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그후 모란봉에는 수백종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함께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 깊은 인연을 맺어온 소나무들도 수많이 뿌리내리고 있다.

관리소연혁자료에 의하면 나무심기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진 1970년대의 몇해동안에 만도 2만여그루의 바늘잎나무를 심었는데 그중 1만 3 000여그루가 소나무였다 고 한다.

결과 올밀매와 최승대, 모란대 등 명승지의 곳곳에 많은 소나무들이 자라게 되었다.

모란대를 지나 어느 한 봉선을 오르는 우리의 귀전에 문득 모란봉에서 구호문헌이 나타났다 한 로인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수십년전에 여기 모

란봉에서 (조선독립), (조선은 광복된다) 등의 글발들이 씌어진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구호문헌들이 발굴되었는데 그 구호나무들이 다름아닌 소나무들이었다.》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어보니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더해준 소나무가 마치 불굴의 투사와의 같은 장한 모습으로 우리 가슴속에 새겨졌다.

모란봉의 곳곳에서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바람결에 설레이고있었다. 여기저기에서 두팔벌려 소나무를 안아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성할 아지들이 휘날려진 소나무를 사색질이 거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벌써 화관을 펼쳐놓고 활달한 필치로 속사를 하고있었다.

대동강구역에 산다는 한 미술애호가는 자기는 자주 모란봉에 올라 수많은 소나무그림을 그려왔지만 소나무에 담겨진 우리 민족의 기상과 넋을 다 그려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는 꼭 훌륭한 소나무그림을 내놓겠다고 하였다.

우리 민족의 삶과 오래도록 얽혀져있는 소나무. 거기에 어린 민족의 기상과 불굴의 넋을 사랑하는 공화국인민들이나.

모란봉의 푸른 숲을 돌아보며 우리는 한사람 혹은 두사람의 이름이 적힌 배쪽을 단 어린 소나무들도 찾아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그 소나무들은 평양시민들이 자기 생일날이나 한생의 중대사인 새가정을 이루는 날을 비롯하여 주요계기들에 모란봉에 올라 심은것들이라고 한다.

바로 얼마전에도 한쌍의 청춘남녀가 뜻깊은 결혼식날에 이곳 모란봉에 소나무모를 안고와 자기들의 깨끗한 애국의 마음과 함께 심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 꼭 아름드리나무로 키우겠다고, 자기들은 소나무를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살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민족의 기상 넘치는 소나무는 오늘날 공화국인민들의 생활속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있다.

본사기자 현은경



사화

울릉도를 찾아온 안룡복 (2)

글 홍기문, 그림 김영희

오랑도도주는 안룡복을 사내다운 사람이라고 련해 칭찬하면서 겨우 제 체면을 수습하면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다음에 비로소 담판이 시작되었다.

《울릉도가 우리 나라에서는 하루길인데 귀국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도 닷새걸이지 않소? 그걸 가지고 말세를 일으키는것은 두 나라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는 본의가 아니요, 당신에게 필요하단것이 있거든 말씀만 하시오. 대마도주에게 기별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소청을 들어드릴수 있을것이지요.》

안룡복은 비로소 울릉도를 가지고 말세를 살았는지 대마도주관백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고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심을 더 한층 굳게 하게 되었다. 신사한 은덩이를 도로 돌려주면 백기주래수에게 강경하게 청하였다.

《내가 은덩이로 금덩이를 요구하는건 아니요, 그저 일본사람들이 우리 나라 땅인 울릉도에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당신이 고안한책이요.》

백기주래수가 아무리 달래도 안룡복의 마음을 움직여 내기는 어려웠다. 마침내 관백에게 그 사연을 고한 후 그가 청하는대로 글을 만들 어주었다. 안룡복이 그 글을

로 갔더랬다는것만 바른대로 말하지 않은 외에는 전후 사실을 그대로 상세히 진술 하였다. 특히 끝으로 울릉도에 대해서는 금후 대마도놈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형편을 동래부사도 참고하러니와 꼭 정부에 알려줄것을 청하였다. 그런데 안룡복의 보고에 대한 동래부사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조그만 백성이 중대한 나라일에 참견하고 나서하는것은 의람된것이며 네 소행에 대해서는 임금에게 아뢰어 다시 결말을 지으려 하니 아

고 예측하였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조선에서 아무런 말이 없는것을 다행했지만 여기는것이 아니라 울릉도를 저희의 령지로 아주 확인해 보자고 덤벼들고있었다.

1694년 2월 대마도주의 부하인 팔진중이관자는 다음과 같은 대마도주의 편지를 동래부사에게 전달하였다.

《우리 나라의 땅인 (다게시마)로 귀국의 어떤 40여명이 침범해 들어왔기에 우리는 안룡복, 박늘둔 두사람을 붙들어갔다가 두 나라사이의 화목한 정을 고려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금후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

소리로 서울에 보고를 했고 몸조심을 잘하는 서울의 양반통치계급은 체면존계 굴복해버릴것을 궁리하였다. 그들의 대마주는 설사 《다게시마》란것이 꼭 우리 울릉도라고 하더라도 황폐한 작은 섬을 가지고 이웃 나라와 불화를 일으킬 맛도 없을뿐더러 더구나 우리의 울릉도가 꼭 《다게시마》라고 단정할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떠들었다. 그래서 접판관(외국사신을 접대하고 일을 교섭하는 임무를 맡은 관리)으로 홍중하를 동래로 내려보내면서 좋도록 팔진중을 아무만저 보내라고 하였다. 그속도 모르면 안룡복이 청에 청을 다 해서 일부러 홍중하를 찾아보고 강경정책을 주장하였으나 그런 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갈리 없었다. 그런데 대마도주의 편지에 대한 회답이 계속 발생이 되어 그해 8월에 팔진중이 더 한 번 동래로 왔을 때 중앙에서는 유집일을 접판관으로 내려보냈다. 안룡복이 유집일을 또 만나서 일본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준 결과 유집일은 홍중하보다 조금 강경한 태도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무능력하고 비겁한 양반통치계급에게는 울릉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성의도 없고 용기도 없었다. 대마도주와 편지로 말다툼을 하느라고 한해 지나고 이래 지나는 동안 일본의 어부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우리의 울릉도를 드나들고있을뿐이었다.



차동물세계-옥루기륜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시간측정기구들에는 자동물시계-옥루기륜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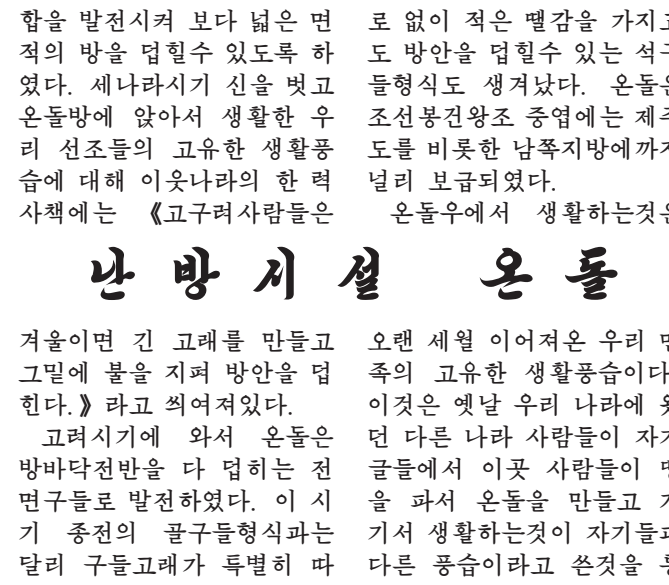
옥루기륜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438년에 홍경각안에 설치했던 자동물시계이다. 장영실과 리천이 제작하였다.

옥루기륜은 자격루와 비교해볼 때 물의 힘으로 종, 북, 징을 치는 장치는 같으나 12개의 인형이 각각 자기가 맡은 시간동안 פע쪽을 들고 서있다가 자기 시간이 지나면 여닫는 문을 열고 밀어서 내려가 숨어버리는 장치가 더 있었다.

특히 여기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초양만 한 크기의 금덩어리가 실제적인 태양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속도로 운동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었고 그 모든 장

구의 역할도 하고있었다.

또한 《태양》, 인형 및 그밖의 모든 가동물들이 하나의 수차의 운동에 의하여 움직이도록 수많은 차차를 가지고있었다는 점에서는 물시계로부터 오늘날



난방시설 온돌

겨울이면 긴 고래를 만들고 그밑에 불을 지펴 방안을 덥힌다.》라고 씌여져있다.

고려시기에 와서 온돌은 방바닥전반을 다 덮히는 전면구들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종전의 골구들형식과는 달리 구들고래가 특별히 따

로 없이 적은 열감을 가지고도 방안을 덥힐수 있는 석구들형식도 생겨났다. 온돌은 조선봉건왕조 중엽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남쪽지방에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온돌에서 생활하는것은 온돌세월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습속이다. 이것은 옛날 우리 나라에 왔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골들에서 이곳 사람들이 땅을 파서 온돌을 만들고 거기서 생활하는것이 자기들과 다른 풍습이라고 쓴것을 통

고전문헌들을 통해 본 조선민족의 자랑-김치

철김치가 오래전부터 식생활에 리용되어왔다고 씌여 있다.

김치담그는 방법이 조선 봉건왕조시기에 와서 더욱 발전하였는데 대해 《세종실록》과 《성소부부고》, 《음식지미방》 등이 구체적으로 전하고있다.

특히 18세기에 편찬된 《산림경제》에는 17세기 초 이후부터 고추를 비롯한 여러가지 양념감과 잘 조화된 김치가 만들어졌다

고 씌여있다.

이밖에도 여러 역사서들에는 김치의 종류가 40여종에 달하며 그 가공에 쓰이는 재료도 대단히 많은데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있다.

이처럼 력사가 오랜 조선의 김치는 오늘날 세계5대 건강음식의 하나로 되었으며 김치담그기풍습은 2015년에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결혼풍습

예로부터 의리와 도덕을 귀중히 여겨온 우리 민족은 남자가 한번 결혼하면 일생 동안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것을 본분으로, 의무로 여기었다.

고려시기만 보아도 부부는 쉽게 리혼하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리혼할 때에는 법적 제재까지 받았다. 당시에는 부모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처를 버린자는 버스를 박하고 제한된 지역에서만 살게 하는 벌을 주었으며 처가 마음대로 집을 뛰쳐나갔을 때에는 엄한 형벌까지 주었다고 한다.

근로인민들의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신의가 두렵고 서로 진심으로 위해주고 도와주었으며 남편이 안해를 구박하거나 더구나 내쫓는 일이 드물었다. 안해역시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배반하는 현상이 없었다. 그리고 부부간에 재산을 가지고 다루는 일도 없었다.

우리 민족의 이러한 결혼과 부부관계는 조선봉건왕

조시기에도 그대로 계승되어왔다.

이 시기의 법전에도 남편이나 안해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주어야 한다고 밝히었으나 그 어떤 경우에도 리혼은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고 《안해를 내쫓는 다.》는 문구자체가 없었다. 그만큼 안해를 내쫓는것은 도덕적인 규탄과 사회적비난의 대상으로 되어있었다.

18세기 유 아무개라는 사람은 안해의 《은당치 못한 행동》에 대하여 관청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관청에서는 《나라법에 안해를 내쫓는 다.》는 조항이 없어 리혼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한번 결혼하면 일생동안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것을 본분으로, 의무로 여기었으며 리혼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비도덕적인것으로 간주하였다.

본사기자

유모야 모두 무서워 하라

수술준비를 하던 의사가 긴장되어있는 환자를 보며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무서워하오?》

《나는 처음으로 수술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좀 떨립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도 흥분되고 불안해하는것 같은데요?》

《그야 그렇지요. 나도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수술이거든요.》

모두 무서워 하라

수술준비를 하던 의사가 긴장되어있는 환자를 보며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무서워하오?》

《나는 처음으로 수술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좀 떨립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도 흥분되고 불안해하는것 같은데요?》

《그야 그렇지요. 나도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수술이거든요.》